

보도자료

올리버 장관, 균형 예산안 상정-낮은 세금의 고용과 성장, 안전을 위한 계획

고용과 성장을 지원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의 번영을 촉진하며 캐나다 국민의 안전을 확립하는 2015 경제실천계획

2015년 4월 21일

온타리오 주 오타와 시

재무부

조 올리버 재무부 장관은 오늘 하퍼 정부의 균형 예산안이자, 고용과 성장, 안정을 위한 저(低) 세금 플랜으로서 다음을 골자로 하는 2015 경제실천계획을 상정했다.

- **하퍼 정부의 2015년 균형 예산 달성 약속 이행.** 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연방세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50여 년 만에 균형 재정을 되찾는다.
- **고용 및 성장 지원.** 캐나다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용 창출 기업의 번영을 촉진하며, 기간 시설에 대한 정부의 역사적인 지원을 근간으로 하여 혁신적인 신규 투자를 실시하고, 고용주들의 변화하는 필요에 발맞추어 고도로 숙련된 노동력을 길러냄으로써 고용과 성장을 지원한다.
- **가정과 지역사회의 번영 지원.** 성실한 가정과 개인에 대한 세금 경감 및 지원책을 유지하는 한편, 온 국민에게 기회를 확대하여 가정과 지역사회를 돕는다.
- **안전 증진.** 군을 지원하고 국내외 테러 위협에서 국민을 보호하여 안전을 도모한다.

균형 예산 달성:

- 적자폭은 경기침체 최고조 당시의 556억 달러에서 점차 감축되어 2015-16년에는 14억 달러의 흑자가 예상된다.
- 하퍼 정부는 경기침체 이전에 370억 달러의 부채를 상환하였으며 바로 이것이 캐나다 정부의 순 부채부담이 서방 선진 7개국(G7) 최저치이며 주요 20개국(G20) 중에서도 낮은 수준인 주요 원인이다.
- 고용을 창출하고 국민에게 더 많은 실질적인 혜택을 돌려주는 하퍼 정부의 책임 있는 재정 관리 정책의 법적 확립을 위해 균형예산법안을 상정한다.



- 하퍼 정부는 균형예산을 통해 캐나다 가정과 개인에 대한 세금을 더욱 감면할 수 있다.

고용과 성장 지원:

- 2019년까지 소기업 세율을 9퍼센트로 낮추어, 지금부터 2019-20년 사이에 고용을 창출하는 소기업과 그 고용주들이 270억 달러(추산) 규모의 혜택을 돌려받게 한다.
- 제조업 부문에 10년 동안 자본비용 가속공제금(accelerated capital cost allowance)을 제공하여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를 장려한다.
- 농업 및 어업 종사 사업주들에 대한 평생양도소득세 감면액(Capital Gains Exemption)을 1백만 달러로 증액한다.
- 캐나다 소기업 융자(Canada Small Business Financing) 프로그램을 통해 소기업에 대한 융자 기회를 확대한다.
-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캐나다사업개발은행(Development Bank of Canada) 및 캐나다수출개발공사(Canada and Export Development Canada)를 통한 서비스를 확대한다.
- 청(소)년 기업의 지원을 위해 퓨처프리뉴어 캐나다(Futurpreneur Canada)에 2년에 걸쳐 1천 4백만 달러를 제공한다.
- 여성기업인을 위한 실천계획(Action Plan for Women Entrepreneurs)을 지원한다.
- 벤처캐피털 실천계획을 통해 혁신적인 기업의 성장과 고용 창출을 돕는다.
- 레드실(Red Seal) 목표 직종의 자격증 요건과 직업훈련 내용이 부합하도록 촉진하는 각 주 및 준주의 업무를 지원한다.
- 정부의 최신 과학·기술·혁신 전략을 앞당길 수 있도록 5개년에 걸쳐 150억 달러 이상의 재정을 지원하여 세계 수준의 연구 개발에 투자한다.
- 신(新) 캐나다 건설 계획(New Building Canada Plan)에 의거, 주·준주 및 지자체 기간시설에 대한 매년 평균 53.5억 달러 제공 기초를 유지한다.
- 2017-18년 회계연도부터 2년간 7억 5천만 달러 투자 및 그 후 매년 10억 달러 투자를 통해 대도시의 교통 체증을 줄이고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대중교통 기간시설을 건설한다.

가정과 지역사회의 번영 지원:

- 2015년부터 비과세저축(TFSA) 투자한도를 1만 달러로 증액한다.
- 은퇴소득펀드(RRIF)에 대한 최소인출 규정을 완화하여 노년층이 향후 필요한 은퇴 소득의 필요에 맞도록 은퇴 저축을 더욱 잘 보호하게 돕는다.
- 노년층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주택 접근성 향상 세액공제(Home Accessibility Tax Credit)를 도입하여 주택의 안전성과 접근성을 개선, 이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 접근성 때문에 집을 떠날 필요가 없도록 주택 개조 비용에 대한 공제를 실시한다.
- 중·저소득 대학생 그랜트(Low- and Middle-Income Canada Student Grants) 신청 자격을 단기 프로그램 재학생까지 확대하여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 캐나다 학자금 대출(Canada Student Loans) 프로그램의 ‘필요성 평가’ 과정에서 심사되는 예상 학부모 부담분을 줄여 실효성을 증진한다.
- 2016-17 회계연도를 시작으로 4년에 걸쳐 공공지원 주택에 1억 5천만 달러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주택 제공자들이 계약기간 갱신이 필요 없는 장기 모기지를 벌칙금



없이 조기 상환할 수 있게 하여 지역사회에 취약계층을 지원한다.

- 시각장애인에 대한 인쇄물 접근성을 개선한다.
- 캐나다 물개(seal) 제품에 대한 신규 시장 진입 지원을 위해 5년에 걸쳐 5백 70만 달러를 제공한다.
- 재향군인(veteran)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지원을 확보한다. 경~중급 장애를 입은 재향군인에 대한 은퇴소득보장 급여(Retirement Income Security Benefit)를 신설하며, 상이 재향군인의 영구장애수당(Permanent Impairment Allowance) 접근을 확대하고, 장애를 입은 파트타임 예비군 재향군인에 대한 소득상실급여(Earnings Loss Benefit)를 강화하며, 비과세 가족 간병인 구호 급여(Family Caregiver Relief Benefit)를 신설하여 간병인을 인정하고, 재향군인 개개인에 특화된 지원 수준을 증진한다.
- 중병 또는 말기 환자인 가족 구성원을 돌보는 국민에 대한 지원 개선을 위해 현행 6주의 고용보험 특별 간병 급여(Employment Insurance Compassionate Care Benefit)를 6개월로 확대한다.

국민 안전 강화:

- 캐나다 군에 10년에 걸쳐 약 120억 달러를 지원하여 국방 재정을 증진하고 이로써 캐나다가 국내외에서 전투 가능 수준의 군사력을 유지하도록 한다.
- 2015-16년 3억 6천 5백만 달러의 ISIS 대응을 위한 국방 예산을 제공하여 캐나다 병력의 배치를 지원한다.
 - 연방경찰(RCMP)과 국가정보부(CSIS), 국경관리국(CBSA)에 추가 재원을 제공하여 테러 행위에 대비한다.
- 캐나다의 해외 첩보 수집 능력을 제고한다.
- 국경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비자가 필요한 일부 국가에서 입국하는 위험성이 낮은 여행자들의 캐나다 입국을 용이하게 한다.

간략 정보

- 하퍼 정부의 감세와 급여(benefit) 증대로, 전형적인 4인 맞벌이 가족의 경우 2015년에 세금 감면 및 최고 6,600달러의 규모의 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 정부는 집권 이래 매년 세금을 감면하여, 현행 연방세 부담액은 사실상 50여 년 만에 최저 수준이다.
- 2009년 6월 말 대비 현재 120만 명의 고용이 추가 창출되었다. 이 순(net) 신규 고용의 대부분은 민간 산업 부문의 고임금, 풀타임 직종이었다.
- 캐나다는 G7 국가 중에서 최고의 경제 회복 성과를 보여주었다.
- 실질 국내총생산(real GDP)은 경기침체 이전보다 상당히 높아져 G7 국가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 세계경제포럼(WEF)은 ‘글로벌 경쟁력 보고서’에서 캐나다의 금융 시스템을 세계에서 가장 건전한 것으로 7년 연속 평가했다.
- KPMG에 따르면 캐나다의 총 법인세 비용은 G7 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미국보다 46퍼센트 더 낮다.
- 블룸버그는 캐나다를 세계에서 기업하기 좋은 나라 2위로 꼽았다.
- 4개의 신용평가회사—무디스, 피치, 스탠더드 & 푸어스, DBRS—에서 캐나다의 최상위 신용등급 순위를 재확인했으며 캐나다는 올해도 AAA 등급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 제실천계획 2015는 고용과 성장, 장기적인 번영을 창출할 것이다. ‘계획’은 우리가 약속했듯이 균형예산안으로서, 성실한 개인과 가정들에 대한 세금을 감면하고 있다. 신중하고 원칙에 입각한 실천계획 2015는 국민들에게 더욱 확고한 번영과 안전, 캐나다의 위상에 대한 자신감을 안겨줄 것이다. 스티븐 하퍼 총리의 견고한 지도력 아래 캐나다의 재정은 순항 중이니 국민들은 안심해도 좋다.”

조 올리버 재무부 장관

문의처:

Melissa Lantsman Director of
Communications Office of the
Minister of Finance 613-369-
5696

Stéphanie Rubec Media
Relations Department of
Finance 613-369-4000

모든 자료에 대한 이메일 통지를 원하시면 다음 웹사이트에서 등록하십시오.
www.fin.gc.ca/scripts/register-eng.asp.

